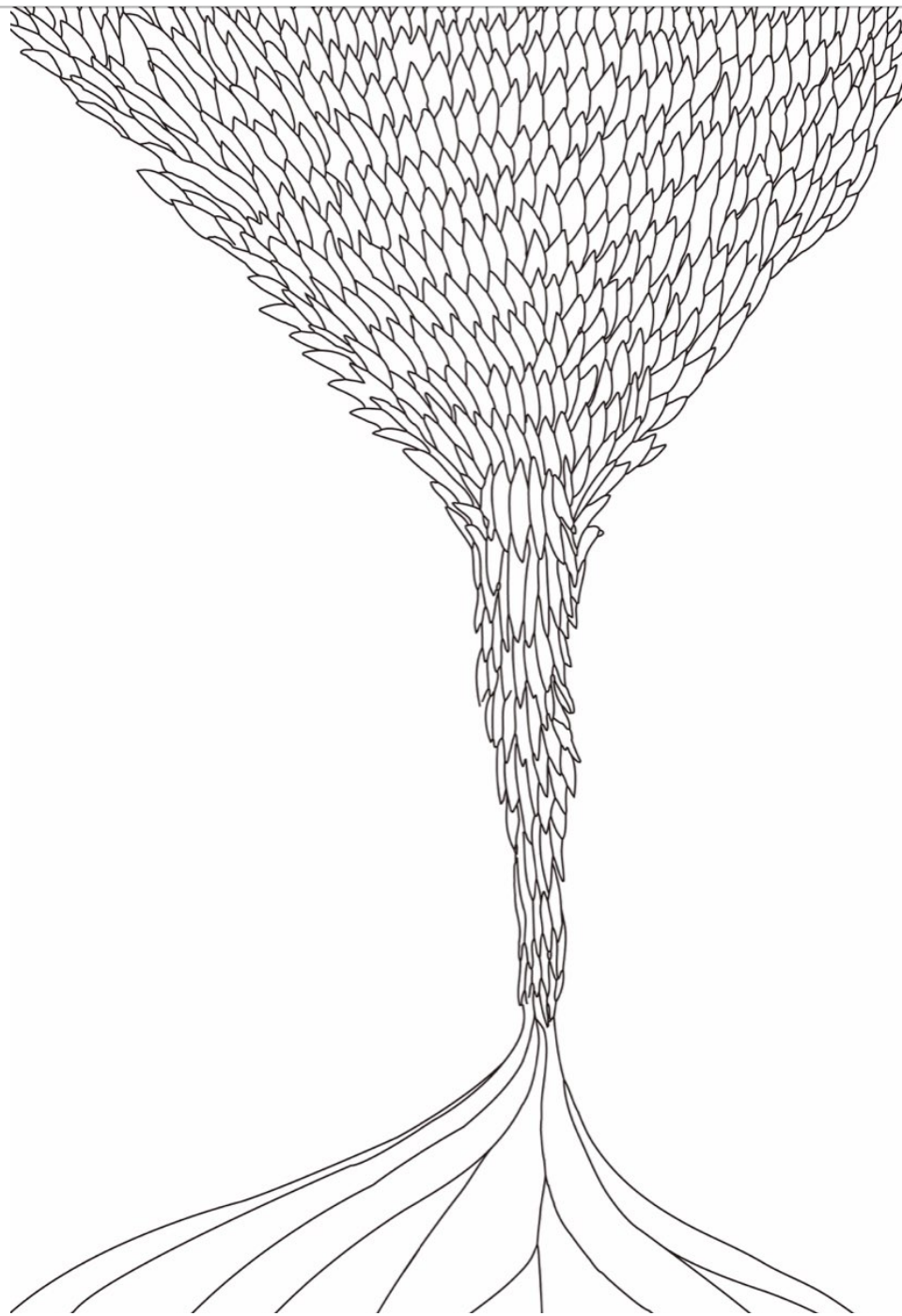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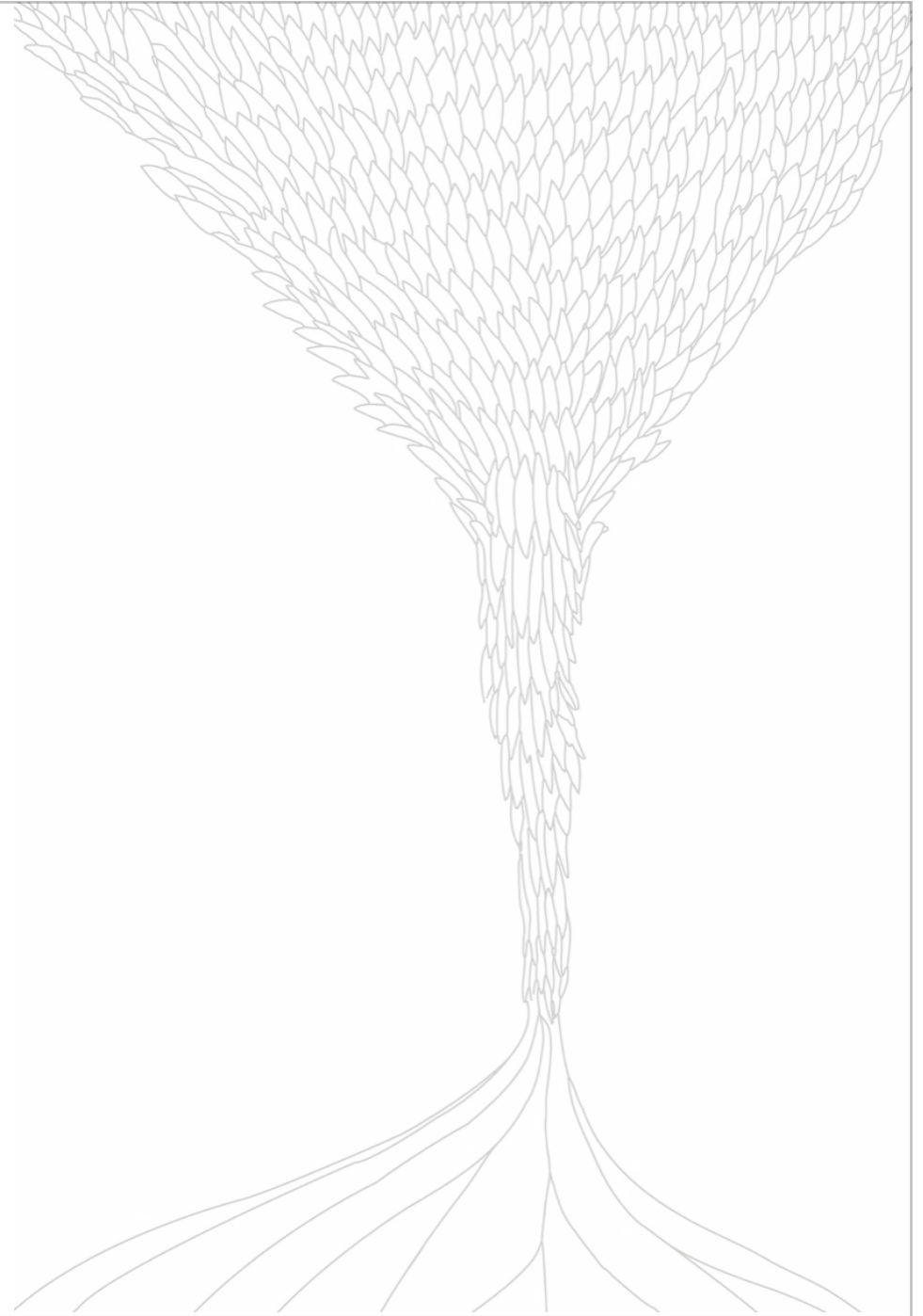
나의 깔때기 이야기
my stories about funnel

김희주
D2017053



차례

1. 갈때기에 관하여
 - 1.1. 갈때기란?
 - 1.2. 갈때기 이야기
2. 나의 갈때기
 - 2.1. 내가 만든 갈때기
 - 2.2. 내 작업 속 갈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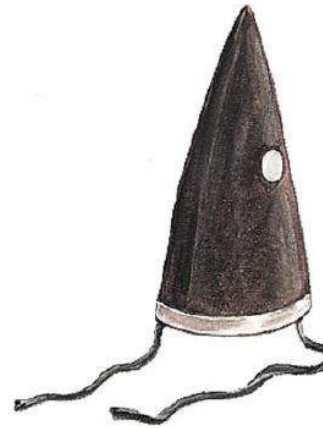
1. 깔때기에 관하여

1.1. 깔때기란?

깔때기는 나팔꽃 모양으로 된, 윗 부분이 넓고 아랫부분이 좁은 원뿔 모양의 도구로, 한 용기에서 다른 용기로 액체나 낱알 등을 옮기기 위해 사용한다. 유리나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강 등의 재료로 만든다. 과학실험에서 자주 쓰이는 깔때기는 아랫부분이 비스듬 하게 잘려 있어 끝이 뾰족한 것이 많다. 이 부분을 벽에 대고 액체 물질을 흘려보내면 주변으로 액체가 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흘려내려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토네이도라고 부르는 회오리 바람이 일면 회오리 모양의 구름을 형성하는데, 이 구름의 모양이 깔때기와 비슷해 이를 깔때기 구름 funnel cloud 라고 부르기도 한다.¹ 우리 말 깔때기의 어원은 옛날 부터 머리에 쓰던 고깔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깔때기는 옛날에 형조나 금부 등에서 주로 죄인을 다루던 나장이나 군뢰들이 머리에 쓰는 것을 가리키던 말이다. 두꺼운 종이로 고깔 비슷하게 접고 앞쪽에 넓고 두꺼운 종이 판을 세워 붙인 다음 전체에 검은 칠을 했다. 옛날에 병졸들이 쓰던 모자와 모양이 비슷하다고 하여 같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²



6.25 전쟁 당시 사용된 철제 깔때기



옛날 금부와 형조에서 병졸들이 의식을 행할 때 머리에 썼던 건.

¹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깔때기>, 네이버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3504&cid=40942&categoryId=32251>

² 네이버 국어사전 '깔때기 어원' <http://krdic.naver.com/user.nhn?docid=0a7808314a0102210d0444dc92f93cbf>

깔때기는 인간이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사용 되어 왔을 것이다. 현재 발굴된 깔때기 유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중국에서 발견된 5000년 전의 양조장 유적에서 발굴된 토기 깔때기이다. 고고학자들은 이 깔때기가 고대 중국의 맥주 제조과정에서 여과 및 저장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BC 3400-2900년 경 중국에서 맥주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 깔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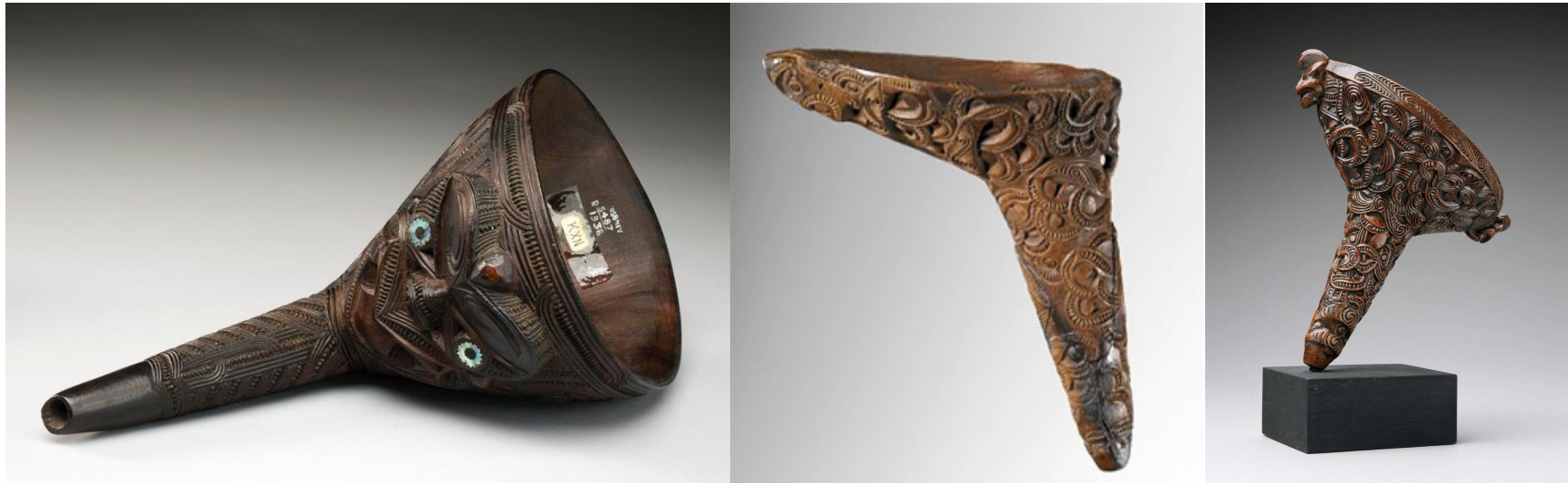


AD 1-3세기에 로마에서 조리용으로 사용된 깔때기



히에로니무스 보쉬, 어리석음의 치료, 16세기 경

영어 단어 funnel의 어원은 중세 영어 fonel, 옛 프로방스 지방 언어 fonilh, 깔때기를 뜻하는 라틴어 fundibulum에서 유래하였다. 위에서 아래로 무언가를 흘려내리는 것이 깔때기의 기능이기 때문인지 중세 유럽에서는 거꾸로 뒤집어진 깔때기나 고깔은 실성을 의미했다. 히에로니무스 보쉬의 그림 어리석음의 치료 The Extraction of the Stone of Madness에서 거꾸로 된 고깔을 뒤집어 쓴 사람이 환자의 머리에 구멍을 뚫어 무언가를 꺼내고 있다. 실성함, 정신이상인 뒤집어진 고깔로 상징되고 있으며 당시 유행하였던 머리를 뚫어 환자를 치료하는 개공술에 대한 우화적 표현을 드러내고 있다.



왼쪽 부터 각각 영국 과학 박물관, 프랑스 국립 인류사 박물관, 미국 보스턴 미술관 소장

코레레 Korere 라는 이름의 이 화려한 깔때기는 음식을 주는 깔때기 feeding funnel 이다.

뉴질랜드의 마오리Maori 족에서 만들고 사용한 이 깔때기는 사람의 입에 물리고 음식을 흘려 넣어주는 용도로 사용 되었다. 족장 또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이 종족의 전통인 얼굴 전체 문신을 하여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때 이 깔때기를 통해 음식을 제공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문신 의식을 치를 때는 음식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금기시 되었고, 시술은 얼굴 전체를 부풀게 했기 때문에 이 깔때기는 음식과 족장의 접촉을 막고, 치료약을 제공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19세기와 20세기에 나무로 제작 되었고 표면에는 주로 영웅적인 조상의 얼굴, 소용돌이 문양, 전복 껍데기 같은 것들이 장식 된다.



뷔흐너 깔때기

실험용 분별 깔때기

깔때기는 과학 실험용으로 현대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근대 화학이 발전하는데에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깔때기는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19세기에 발명된, 실험용 깔때기의 하나인 뷔흐너 깔때기 Büchner funnel 는 실험시 여과에 사용되는 장비이다. 깔때기 내부에 구멍이 뚫린 막이 하나 더 있으며 여기에 거름종이를 장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우리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도 깔때기가 있다. '깔때기 효과'는 어떤 사건이나 화제 등이 다양하게 논의 되다가 모두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을 뜻한다. '병목 현상'은 병의 목 부분처럼 넓은 길이 갑자기 좁게 줄어들어 일어나는 교통 정체현상이다. 이 병목 현상은 경제 용어로도 쓰이는데, 이른바 '병목현상 인플레이션'이 그것이다. 보통 생산능력의 증가 속도가 수요의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으로, 수요의 갑작스런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 2000년을 전후해 컴퓨터에도 이 병목현상이라는 용어가 등장 하였는데, 이는 유명한 그래픽 칩 제조회사들의 제품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내보내더라도 메모리가 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이를 '메모리 병목현상'이라고 한다.³

³ 네이버 지식백과 병목현상 [瓶—現象]<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11593&cid=40942&categoryId=31637>

1.2. 깔때기 이야기

좁은 병에 액체를 옮겨 담을 때 사용한다는, 기능에 아주 충실한 깔때기의 모양은 특별할 것도 없지만, 가만히 들여다 보면 정말 독특하다. 그리고 아주 똑똑한 물건이다. 특별하게 하면 특별해 질 수도, 아주 간단하기 하려면 아주 간단해 질 수도 있는 깔때기들은 용도, 재료, 시기에 따라 다른 모양을 갖고 있다.

나는 2004년부터 깔때기를 수집하였다. 당시 나는 색색의 다양한 모양의 플라스틱 깔때기들을 여기저기서 발견하면서, 아주 흔하지만 각각의 모양은 다 다른 깔때기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이 때까지는 수집이라고 할 수 없는, 그저 발견하는대로 사서 모으기 정도였지만, 우연히 오래된 옛날 깔때기를 접한 것이 처음 깔때기를 수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17-8 세기에 유럽에서 사용된 향수를 옮겨담는데 사용되었던 아주 예쁜 은제 깔때기 였다. 그때부터 나는 깔때기가 아주 오래되고 흥미로운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런 깔때기들을 찾아서 수집 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깔때기의 공간감이 좋다. 위 아래가 뚫려있는, 단순한 통로 형식이지만 넓어지고 좁아지는 내부의 공간은 많은 가능성을 의미하는 듯 했다. 외부 공간과 완전히 분리 되지는 않았지만 깔때기라는 물건의, 일종의 벽으로 일시적으로 구분된 공간은 조금 특별해 진다. 위에서 보면 깔때기의 열린 공간의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고 뒤집어 보면 우아한 볼륨감을, 때로는 명료한 고깔의 직선으로 드러나는 부피감은 많은 것을 상상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 아래의 구분에서 알 수 있는 방향성은 성장, 소급, 확대, 축소와 같은 여러가지 생각들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상상들은 나의 작업과 연관 되어 발전되었고 그 이야기들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수집한 깔때기의 일부.

고무 깔때기, 구리로 만들어진 균용 기름 깔때기, 범랑 깔때기, 알레시Alessi의 피노키오 깔때기

2. 나의 깔때기

2.1. 내가만든 깔때기



논쟁

소문

언어순화

말과 깔때기 연작, 동, 황동, 유리관, 흙, 노끈, 점토

말과 깔때기 2006

말과 깔때기 작업들은 '깔때기 효과'를 우리의 일상 대화와 소통의 과정 속으로 끌어들이며 논쟁, 소문, 언어순화를 시각화 하여 실제 깔때기로 제작한 것이다. **논쟁**은 여러가지 의견들이 모여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겪으며 하나의 결과로 이른다는 것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로 드러내고 있다. **소문**은 수 많은 소문과 근거없는 이야기들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당사자를 괴롭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언어순화**에서는 많은 말들이 깔때기에 모여 아래로 흘러 내려가며 마치 정수기처럼 거친 말들이 곱게 순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입 깔때기 2005

깔때기

누두(漏斗) 라고도 한다. 액체, 낱알, 등을 주둥이가 좁은 그릇에 옮겨 넣을 때 쓰는 기구로, 넓은 쪽이 위로 가게 하여 사용한다. 작은 것은 과학 실험용으로, 큰 것은 유류나 곡식을 옮겨 부을 때 쓴다. 유리, 플라스틱, 함석 등으로 만든다.

입 깔때기

물, 혹은 음료 등의 액체를 사람의 입에 흘려 넣을 때 쓰는 기구로, 넓은 쪽인 위로 가게 하여 사용한다. 작은 것은 음주 용으로, 큰 것은 음료나 물을 옮겨 흘릴 때 쓴다. 금속,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다.

액체를 모아 어느 한 곳으로 흘려넣는다는 깔때기의 용도를 재 해석 하여 사람의 입으로 음료를 흘려넣는 깔때기로 제작하였다. 음료 페트 병의 위 부분을 잘라 깔때기로 사용하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금속 깔때기와 기존의 플라스틱 깔때기에 금속으로 만든 꺾인 대롱을 연결한 깔때기를 만들었다.



입 깔때기 연작, 동, 황동, 은, 플라스틱 깔때기

깔때기 상자 2007

대학원 2학기때 나는 소중한 것을 담는 보물상자 만들기 수업에서 깔때기를 담는 액자를 만들었다.

내가 담고자 했던 것은 특별한 하나의 깔때기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깔때기의 의미와 상징이었다.

깔때기의 형태적 특성에서 나는 여러가지 재미있는 단어들을 생각해내었고 이들이 나의 입을 통해 뿜어나가는, 또는 다시 모아지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깔때기 상자, 동, 은, 색연필 채색, 아크릴에 디지털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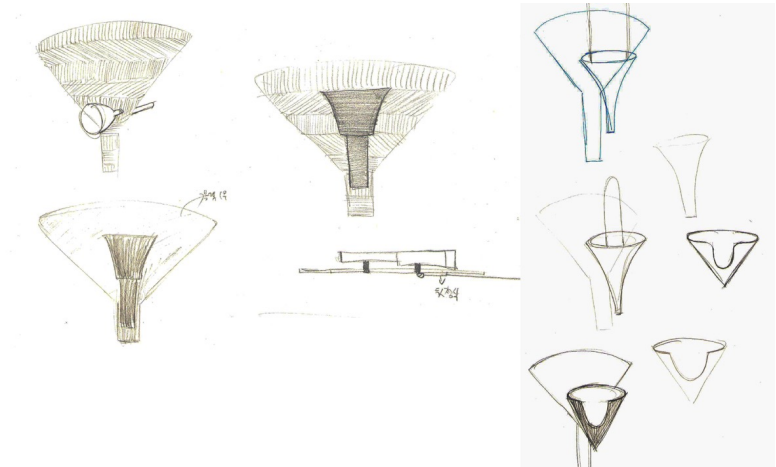
2.2 내 작업 속 깔때기

자기 모습과 깔때기 2008

깔때기라는 물건은 그 만의 고유한 쓰임을 가지고 있다. 액체 따위를 위에서 아래로 모아 흘려보내기 위해 존재하는 형태와 그 내부 공간은 명료하다. 어떠한 결론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며 통로로서도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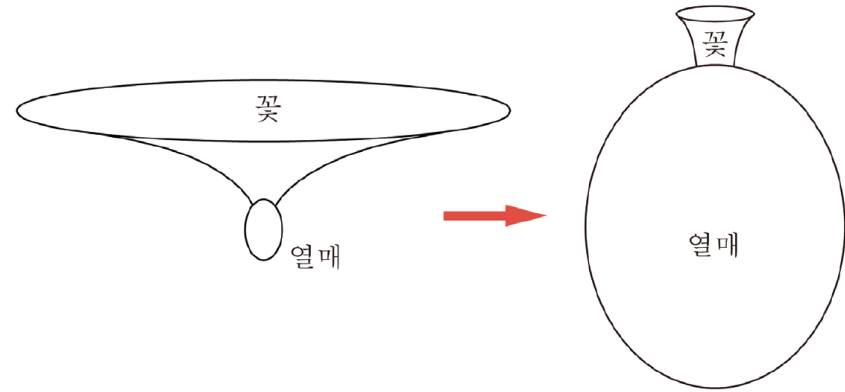
나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한다. 그렇기에 종종 나는 ‘나’라는 존재에 혼란을 느끼고 이제는 버릇이 되어버린 ‘단정 짓기’를 시도하다가 지치고 만다. 하지만 ‘단정 짓기’는 나보다 내 주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듯하고 나 역시 누군가의 주변인으로 존재하며 그들을 단정 짓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그들의 자아는 하나의 모습으로 발현된다고 믿고 모든 행동에 대입시켜가며 남의 자아를 짜 맞춘다.

나는 ‘자아와 발현의 괴리’라는 이야기를 깔때기의 형태적 특징에 비유하여 장신구로 표현하였다. 두 개의 깔때기가 등장하며 하나는 평면, 또 다른 하나는 내부를 보여주는 입체의 형태로 만들어졌고 평면의 것은 기본적인 자신을, 입체의 깔때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을 각각 상징한다. 이 둘은 동일한 물건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형식은 전혀 다르다. 입체의 깔때기를 내부와 외부의 색을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이질감과 공간감을 강조했고 평면의 깔때기는 표면에 질감을 표현 했는데 이것은 포목상감의 바탕금속 질감과 유사하며 제작과정 역시 비슷하다. 정으로 망치질하여 작업 했는데 작업과정과 나타난 질감을 통해 ‘자아와 발현의 괴리’로 인한 고통을 잔잔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목걸이
재료 : 구리, 백동, 테프론, 실

다섯 번째 계절 2010 -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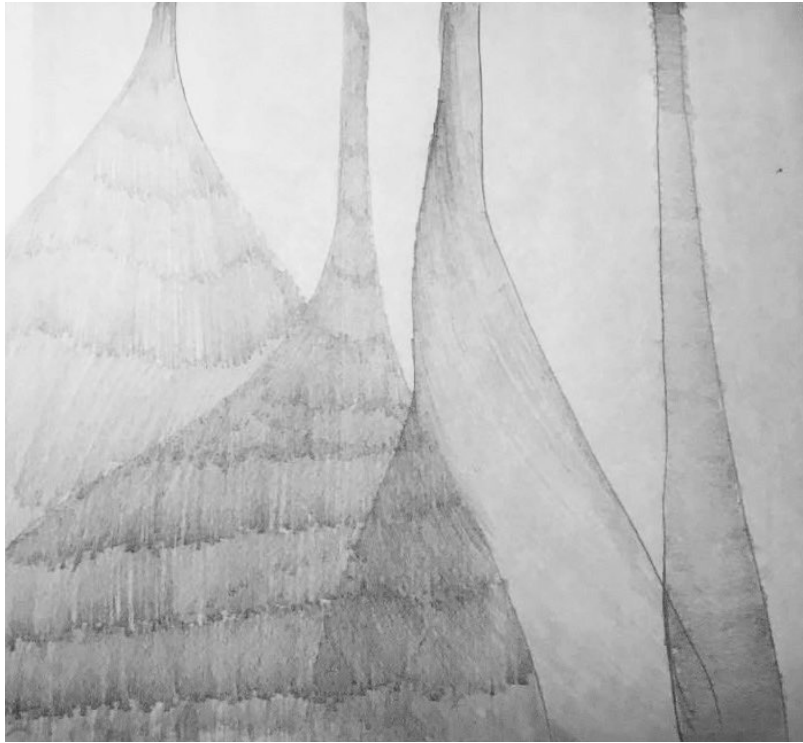
꽃은 깔때기이다
2010년 석사 청구 논문
[식물의 생명력과 원초적 이미지의 표현] 중에서.

깔때기의 넓고 둥근 형태가 좁고 가는 형태로 줄어드는, 또는 반대로 좁고 작은 대롱이 넓게 퍼지는 형태적 특징을 나는 자연물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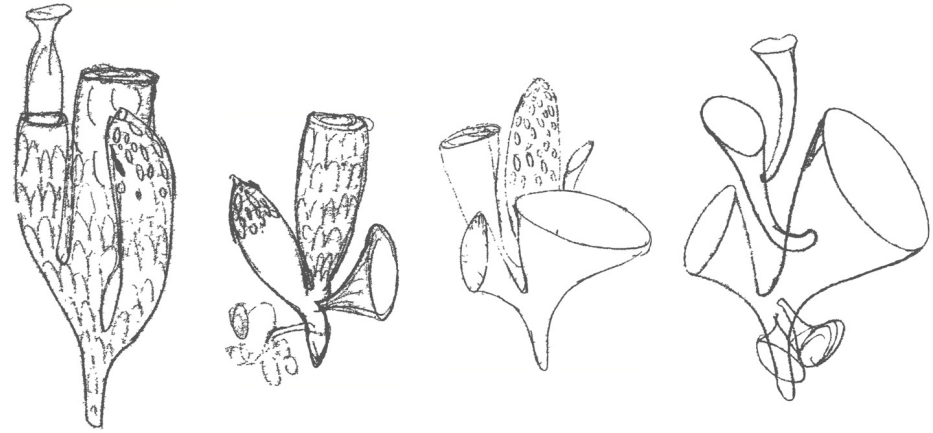
꽃은 깔때기이다.

꽃잎은 암술과 수술이 수정되는 내부 공간을 품고 있는 작은 깔때기이다. 그 작은 공간에서 수정이 되면 꽃잎을 지탱하고 있던 에너지는 꽃 아래로 내려가 씨방으로 몰린다. 제 역할을 다한 꽃은 작아지고 시든다. 반면 새로운 생명 에너지는 꽃에서 부터 내려와 씨방을 가득 채우고 씨방은 불룩하게 부풀어 열매가 된다. 좁아지고 넓어지는 모양은 우리 삶속에 있는 모든 종류의 성장을 의미할 수 있다. 성장의 방향은 수평 수직으로 언제나 일어나고 있고, 나는 자연에서 직접적으로 그 형태와 에너지를 관찰할 수 있었다.

다섯 번째 계절 연작에서 나는 이러한 식물의 성장과 성장을 이끄는 에너지에 대한 은유를 작업의 주요 주제로 삼아 장신구를 제작하고 있다. 삶에 대한 맹목적인 에너지가 넓고 길게 뻗어나가는가 하면, 성장이 끝난 생명이 시들고 작게 소급 되어 끝나고, 다음 생을 준비하는 끊임없는 순환의 모습을 깔때기의 형태적 특징을 사용하여 드러내었다. 퍼지고 다시 줄어들고, 다시 성장하는 생명 에너지의 끊임없는 이동이 시간의 흐름을 넘어 다섯 번째 계절에서 영원한 결실을 맺고 있을 것이다.



자라남 겹침
드로잉 2016



다섯 번째 계절 드로잉
2010년 석사 청구 논문
[식물의 생명력과 원초적 이미지의 표현] 중에서



다섯 번째 계절
목걸이
동, 칠보, 가죽, 실
2011



다섯 번째 계절
브로치
동, 칠보
2013



흔적, 다섯 번째 계절 연작
브로치
장판지
2013



작은 보물들, 다섯 번째 계절 연작
반지
은, 가죽
2016

나의 갈때기 이야기는 계속 될 것이다.

